

영화 속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박태현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TEL: +82-2-880-8020, FAX: +82-2-875-9348

2001년 9월 11일 오전, 뉴욕 맨해튼의 수많은 고층 건물 중에서도 눈에 띄게 높은 쌍둥이 빌딩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한 항공기가 돌진하여 쌍둥이 건물 중 한 건물의 중심부를 정확하게 들이박고, 몇 분이 채 안 되어서 또 다른 항공기가 출현하여 나머지 한 건물마저 박살내는 광경을 누구나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다. CNN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방영된 이 장면은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장면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며칠 후 미국의 TV 뉴스에서는, 911 테러와 같이 현실 세계에서 상상하기 힘든 기상천외한 사건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미국 수사당국은 할리우드의 영화감독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상상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영화는 미래 세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 보여 주는 기발함이 있다. 우리는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소재로 한 영화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주라기 공원, 스파이더맨, 가타카, 여섯번째 날, 얼마 전에 개봉된 아일랜드 등이 그것들이다. 이들 영화 속에는 미래의 세상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떻게 발전하여 나갈 것인가를 엿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